

# 하반기 건설경기도 '불황의 늪'

## 공공공사 발주액 2009년 대비 2085억 ↓ ... 수년째 수주난

도내 건설업체들이 하반기 들어서도 극심한 수주난을 이어가는 등 건설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.

7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 1~8월말까지 도내지역 공공공사 발주액은 8081억원(1455건)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05억원(1370건)에 비해 증가했다.

그러나 지난 2010년(9575억원)에 비해 18.4%(1494억원) 감소한 데다 지난 2009년(1조 166억원)보다는 25.8%(2085억원)나 줄어 수

년째 수주난을 겪고 있다. 올해 수주액이 지난해 보다 소폭 늘어난 것은 원주 혁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건립공사(120억원),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(150억원), 삼척 가스공사 행정동 건축공사(120억원) 등 토목보다 건축공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전문건설업계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. 이는 지자체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과 더불어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. 올해 8월말 기준 도내 전

문건설 업체수는 1924개로 3년전보다 105개 늘었다. 이런 가운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공공공사 발주물량도 크게 줄어 올 8월말까지 발주금액은 23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412억원과 비교하면 93억원(3.9%)이 감소했다.

이처럼 도내 건설업계가 수주난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신규 도로망 개설 등 재정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건설보다는 복지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올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보다 8.0%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.

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"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84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"면서 "동계올림픽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박현철 lawtopia@kado.net